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11월 제조업 PMI 개선, 유럽은 냉각되며 경제에 대한 우려 촉발
 - 러시아,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형 미사일 시험 계속할 것임을 천명
 - 일본 정부, 저소득층 가구 보조금 지급 등 22조엔 규모 경제대책 추진
 - 연준, 5년마다 실시하는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재검토 일정 공개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제조업지수 호조 등 견조한 지표로 투자심리 회복 분위기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경기민감주로 순환매 양상을 보이며 상승
유로 Stoxx600지수도 1.2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미국 제조업 지표,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상승
유로화 가치는 0.5% 하락, 엔화 가치는 0.2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양호한 제조업 지표 속 소폭 하락
독일은 경기우려 지속, ECB의 빅컷 가능성 등으로 8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종가 1402.4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03.8원, 0.2% 하락). 한국 CDS 보합

		11/22일	11/21일	전일대비			11/22일	11/2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969.3	5,948.7	+0.35%	국채 금리 10y	미국	4.40%	4.42%	-2bp
	유럽	508.47	502.54	+1.18%		독일	2.24%	2.32%	-8bp
	중국	3,267.2	3,370.4	-3.06%		영국	4.39%	4.44%	-6bp
	일본	38,284	38,026	+0.68%	CDS 5y	한국	34bp	34bp	-
	한국	2,501.2	2,480.6	+0.83%		중국	63bp	63bp	-
환율	달러지수	107.49	107.07	+0.48%	위험 지표	EMBI+		365	-
	유로화	1.0418	1.0474	-0.53%		VIX	15.24	16.87	-9.66%
	엔화	154.78	154.54	-0.16%		WTI유	71.24	70.10	+1.63%
	위안화	7.2480	7.2422	-0.08%	원자재	구리	408.6	411.0	-0.95%
	원화	1,406.4	1,402.0	-0.31%		금	2,716.2	2,669.7	+1.74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11월 제조업 PMI 개선, 유럽은 냉각되며 경제에 대한 우려 촉발

- S&P 글로벌의 11월 미국 제조업 PMI(예비치)는 48.8로 기준선인 50을 하회했으나 전월의 48.5를 상회하며 4개월래 최고치 기록. 서비스업 PMI는 57.0으로 예상치(55.2)를 상회하며 32개월래 최고치 기록
- S&P는 11월 중 기업들의 분위기가 밝아졌으며, 저금리 전망과 차기 행정부의 친기업적 접근 방식에 대한 기대감이 낙관론을 불러 일으켰다고 평가
- 반면 유로존의 11월 합성 PMI(예비치)는 48.1로 예상치(50)와 전월(50)을 모두 하회하며 10개월래 최저치 기록. 제조업 PMI는 45.2, 서비스업은 49.2로 전월보다 모두 위축
- 함부르크 상업은행은 유로존의 제조업 업황이 더 깊은 침체로 빠지고 있고 서비스 업황도 고전하기 시작했다고 평가. 시장에서는 ECB가 구원투수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러시아,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형 미사일 시험 계속할 것임을 천명

- 푸틴 대통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'오레스니크'를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나 성격에 따라 전투 상황에서의 시험을 포함한 테스트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
-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발사 이후 이를 막을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, 이 방공 시스템이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
- 한편, 우크라이나 의회는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의 정부 청사 구역을 공습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22일 본회의를 취소

■ 일본 정부, 저소득층 가구 보조금 지급 등 22조엔 규모 경제대책 추진

- 22일 각료회의에서 ▲저소득층에 가구당 3만엔 지급 ▲육아가구에 자녀 1명당 2만엔 추가 지급 ▲전기 가스료 보조금 내년 1~3월 실시 등 종합 경제대책을 확정

- 이를 위해 올해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13.9조원을 계상할 방침. 내각부는 이번 대책이 실질 GDP를 21조원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

■ 연준, 5년마다 실시하는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재검토 일정 공개

- 연준은 내년 1월 FOMC(28~29일)부터 프레임워크 재검토를 시작하고, 5월에는 외부 인사와 패널들을 초청해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
- 연준은 장기 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과 FOMC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재검토할 것이라면서도 2% 인플레이션 목표는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
- 프레임워크는 통화정책의 큰 틀로, '19~20년의 프레임워크 재검토에서는 인플레이션이 2% 목표를 일정 기간 다소 상회하더라도 이를 용인해 평균적으로 2%를 맞추는 '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(AIT)'을 채택한 바 있음

■ 외국인 투자자, 9~10월 중 중국 정부채권 53조원 규모 매각

- FT에 따르면, 외국인 투자자들은 작년 11월~금년 8월까지 \$1,300억 이상을 중국 채권에 투자했으나, 금년 4월 이후 수익률이 하락하고 9월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면서 대규모 매도에 나섰으며 대부분이 국채였던 것으로 평가

■ 독일 통계청, 3분기 성장률 0.2% → 0.1%(qoq)로 하향조정

- 전분기 대비 상품수출 -2.4%, 수입 +1.3%, 소비지출(정부·민간 포함) +0.3%, 투자 -0.2%. 수출 감소에도 정부지출로 경기침체에서 겨우 벗어난 것으로 평가

■ 비트코인, SEC 위원장 사퇴 소식 등으로 \$10만 돌파 초읽기

- 비트코인 가격은 22일 오후 2시경(미국 동부 시간) \$99,641에 거래되며 사상 처음으로 \$10만 진입 초읽기에 돌입. 트럼프 당선인의 친가상화폐 정책 약속과 가상화폐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사임 계획 등에 영향

■ 아르헨티나 경제 9월 중 예상 밖 위축

- 통계청에 따르면, 9월 경제활동(Economic Activity, GDP 프록시 지표)은 전월보다 0.3% 하락하며 예상치(+0.9%)를 큰 폭 하회
- 아르헨티나 경제가 최근 6개월 연속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,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예상 밖 결과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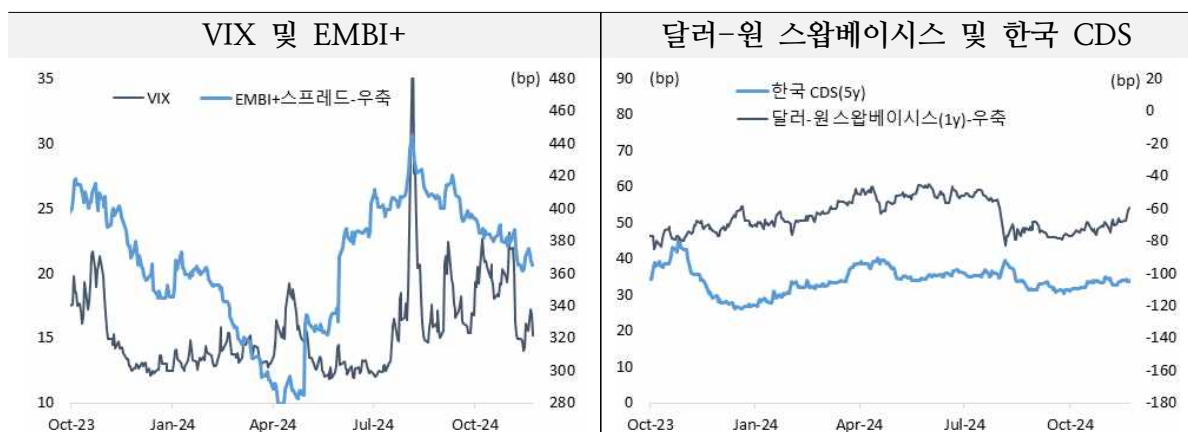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ch@kcif.or.kr